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7월 3일(주일) 제1106호

7월 10일은 '대중교통 이용해 교회 오는 날'



지역주민 배려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캠페인 주차스티커 발부받은 차량만 주차장 이용 가능

다음 주일(7월 10일)은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 오는 날이다. <관련기사 2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날만큼은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택시를 이용해 교회에 와야 한다. 7월 10일 24시간 동안 교회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교회 주차장은 주차스티커를 발부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주차스티커는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발부해준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장애인, 75세 이상 어

르신, 임신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10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에만 주차 스티커를 발부해준다. 동작대교 위 갓길, 삼익아파트, 반도아파트 주변에도 주차하면 안 된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주차 스티커를 발부 받은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신부, 유아동반 차량만 교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7월 10일은 외부 주차장(양재 환승, 구립, 시민의 숲)도 이용할 수 없다. 외부 주차장을 꼭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이 주차비를 부담해야 한다. 택시를 타고 올 경우에도 강남대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 도보로 교회에 와야 한다. 양재역에서 교회로 오는 셔틀이 운영된다.

사회선교부가 주관하는 '대중교통 이용해 교회오는 날' 행사는 지역주민을 배려하고, 환경문제까지 생각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4월 10일에 시행했을 때에도 지역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택시기사 김동수씨는 "평일에도 교

통체증이 심해서 복잡한 지역인데 온누리교회가 자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인근 아파트 경비원 김연하씨는 "차들이 수월하게 다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선교본부장 이기훈 목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오는 캠페인은 다음세대와 지역사회에도 매우 뜻 깊은 행사"라면서 "성도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02-3215-3434, 343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수원, 오늘 오전 9시 창립 13주년 감사예배

수원 온누리교회가 오늘(3일) 오전 9시 본당에서 교회창립 13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3주년 감사예배에는 CGNTV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와 김정훈 장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생일축하 케이크 커팅식이 준비되어 있다. 예배 후에는 성도들에게 국수를 대접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여름 아웃리치 본격 시작!

167개 팀 2,238명 30개국, 107개 지역으로

여름 아웃리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7월 1일 기준으로 성인, 대학청년부, 차세대에서 167개 팀 2,238명이 30개국, 107개 지역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간다. 강남C공동체가 다락방별로 전남 고금도, 강원도 강촌, 경남 남해로 아웃리치를 다녀오는 등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사역팀 주축으로 실시되는 국내 아웃리치도 활발하다. 차세대도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인 아웃리치 시즌에 돌입했다.

여름 아웃리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안

전관리분과위원회와 2000선교본부는 아웃리치 안전수칙을 발표하는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웃리치를 마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안전관리분과위원회와 2000선교본부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강조하면서 "아웃리치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아웃리치 계획부터 보고까지 빠짐없이 보고해줄 것"을 독려했다. 문의 : 02-3215-3208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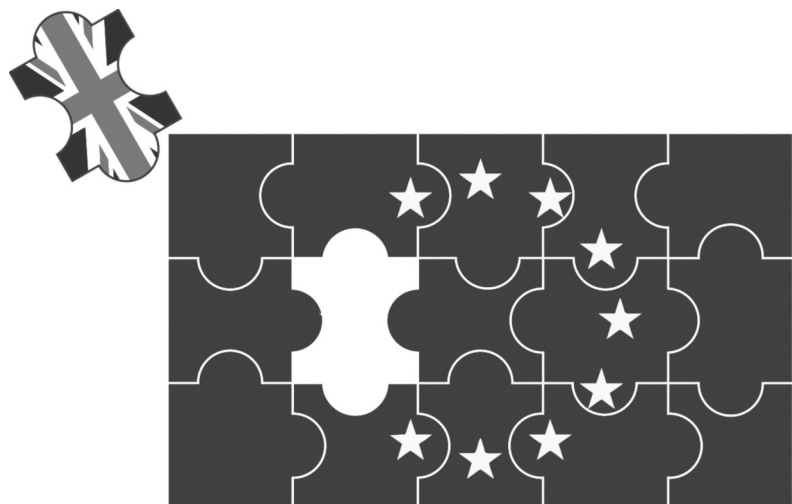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 공모

7~8월 온누리신문은 여름 아웃리치 특집으로 제작된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후기와 간증, 사진을 공모한다.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사역팀의 국내외 아웃리치 후기와 간증, 현장 사진, 글을 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 본지에 게재와 함께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준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장, 글자크기는 10포인트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onnuriweekly@gmail.com) 보내면 된다.

국제사회와 교회의 역할

브렉시트, 그리고 한국 이주민 선교의 미래



2016년 6월 23일(현지시각) 영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하고 EU에서 탈퇴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주자에 대한 반발과 국수주의가 결합하여, EU를 탈퇴하더라도 영국의 이익을 찾겠다는 영국 국민의 결정에 EU의 국가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 브렉시트(Brexit)를 반대해 온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EU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경우, 영연방의 붕괴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한 유럽에서 고립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영국의 선택은 1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독일과 참으로 비교된다. 1980년대 서독은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동유럽과 터키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였다. 1990년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통일 독일은 일자리를 놓고 외국인 근로자들과 동독인들 사이의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런 갈등 속에 독일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한 외국인 테러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독일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며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며 EU의 책임감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그 중 절반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온 동포들(조선족)과 러시아 연방에서 돌아온 동포들(고려인)이다. 또한 5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 9만여 명의 유학생들과 4만 명의 베트남 며느리들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이주민들을 내보낸다면, 그들 중 절반은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고 만주와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우리 민족의 후예인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들일 것이다.

또한, 아시아의 국가들과 공생관계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가 국수주의적인 태도로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을 내보낸다면, 아시아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더 이상 그 나라들에서 일하기가 어려워진다. 한국에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살아가듯, 아시아 각국에는 약 4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는 720만 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외국에서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온 외국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더욱이 한국 교회는 선교적 사명과 열정을 가진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 온 나그네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선한 사마

리아인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요 또한 의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2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면서도, 막상 우리 동네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이주민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단체가 불과 400여곳 정도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6만 여개의 교회들 중 1%미만의 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진정한 세계 선교는 바로 우리 동네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다문화 가정들과 차 한잔, 식사 한끼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타문화권 선교의 시작인 것이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 감소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국내 이주민들의 인구는 앞으로 약 500~6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국제화, 문화의 다양성, 인종과 언어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와 경제 창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국어뿐 아니라 모국어 교육을 충분히 제공한다면,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대한민국과 각 국가들을 연결해주는 든든한 연결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폐쇄적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열린 국가가 될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택은 우리에게 온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 교회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 이주민 선교는 우리에게 선교적 책임일 뿐 아니라, 새로운 교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구조학적으로 주일학교는 점차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이주민 교회, 다문화 교회, 유학생 교회는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국내 거주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고향 가족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주민 교회들과 선교지 현장의 선교사, 현지 교회들이 선교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이루어 낸다면, 이는 새로운 차원의 융합 선교, 곧 선교 시너지가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국은 통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증가할 것이고,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 속에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지금의 다문화 가정들과 이주민들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동포들을 한국 사회와 교회가 성숙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통일 이후에 만나게 될 수백만 명의 북한 이주민들을 우리는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 선교는 장차 우리가 겪게 될 통일 한국을 위한 예비고사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땅에 온 아시아의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시아 각 국가들은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온 이주민들을 배척하고 학대한다면, 아시아의 국가들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 선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성장 전략이며,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현상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 제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한다.

* 이 글은 2016년 6월 28일 아이굿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전재했습니다.



노규석 목사
(온누리M미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가버나움, 고라산, 벳새다, 디베라 마을에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던 때에는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는 배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것 같다. 예수님은 배를 교통수단으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던 설교단, 때로는 쪽잡을 주무시는 침실로도 활용하셨다.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배가 좌초될 위기상황에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는 교육의 도구로도 사용하셨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셨을 것 같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배를 버려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다. 흙투성이, 먼지가 덮인 채 두 발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뚝뚝뚝 걸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 잠시 나

귀 새끼를 탔다는 이야기 외에는 말이나 마차 같은 당시 로마 제국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다는 이야기가 없다. 예수님은 걷는 것을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걷기를 고집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니까.

요즘에는 대부분의 성경책 옆면을 황금색으로 칠하지만 과거에는 빨간색이었다. 주일날 하얀 블라우스나 하얀 와이셔츠에 빨간 성경책을 들고 활짝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예배당으로 걸어가시던 어른들의 모습이 그립다. 지금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렵다. 자가용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집을 나서서 교회로 걸어가는 순간부터 주일예배가 시작된다는 어른들의 정성어린 믿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일만큼은 모두 걸었다. 2천 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

교회의 아름답고 거룩한 전통

왔던 사람들처럼 걷는 것이 참 경건하고 거룩해 보였다. 지금은 빨간색 성경책은 구경조차 쉽지 않고,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보기 힘들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큼은 변함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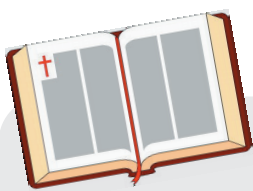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체와도 관계를 맺는 일이다. 예배를 통해 소속감을 갖고, 예배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맡는다. 그 범위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 나라, 지구생명공동체까지도 확대되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살 곳을 잃어가는 적도 지역 섬나라 사람들과 얼음이 녹아 먹이를 찾지 못하는 북극곰까지도 우리가 보듬어야 할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개인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보다 석유라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든다.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줄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더 불어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의 발생도 감소되어 깨끗한 공기를 얻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기억하고 살피는 일이다. 나의 편리함을 잠시 내려놓고, 공동체를 지키고 살피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일이야말로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걸어갔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선배들이 만들고 지켜온 교회의 아름답고 거룩한 전통이다.



이진형 사무총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능력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일행 276명이 몰타 섬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첫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피 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1~2절).

그들은 풍랑 가운데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몰타 섬에 도착했습니다. 몰타 섬은 사실리 남쪽 98km, 아프리카 북동쪽 320km에 위치한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섬입니다. 길이가 29km, 너비가 15km정도 되는 크지 않은 섬입니다. 로마제국은 이 섬의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보블리오’라는 총독을 임명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죽을 직전에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출해주고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풍랑에 휩쓸려 도착한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몰타 섬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폭풍을 만나 그 섬에 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몰타 섬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과정에 개입하셨습니다.

날이 추워 불을 지폈는데 바울이 독사에게 물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 이뤄진 일이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죽일 수 없어서 숨겨 두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자 하는 수 없이 갈대상자

에 모세를 담아 갈대밭에 띄웠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 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출 2:5).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습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열었더니 모세가 울었습니다. 갓난아이가 우는 것을 보는 여인의 마음에 모성애가 생기지 않을까요?룻기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룻 2:3).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밭에 들어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도 몰랐고, 보아스가 친척인지도 몰랐습니다. 양식을 구하려고 갔는데 그 밭이 그녀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 몰타 섬에 들어간 것도 우연히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몰타 섬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풍랑 때문에 몰타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원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기억하십시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단 듯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풍랑을 만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병들어 연약해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업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몰타 섬의 기적

사도행전 28:1~10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충성하십시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 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 두지 않나 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 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 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3~6절).

원주민들이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바울 일행에게 불을 피워줬습니다. 바울 일행도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는 목숨을 건졌지만 살인자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으려고 독사에게 물리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곧 쓰러지고, 몸이 부풀어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고비를 넘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고비를 또 만났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은혜이고, 마지막도 은혜이며,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막 16:17~18).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사자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묶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겼지만 결국 믿음으로 몸을 요단강에 담갔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의 피부 같이 깨끗해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같이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셋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7~10절).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입니다.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섬의 총독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3일 동안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보블리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이었지만 아버지의 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섬에 있던 다른 병자들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높임받기 위해서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그냥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형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계획이 있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죽음 문턱까지 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시 57:7~8).

바울은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명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전까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충성을 다하십시오. 사람의 소리, 시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획_차세대와 청년

1. “꿈이요? 공무원 아니면 건물주”
2. 응원하는 1세대, 보여주는 2세대, 배우는 3세대
3. 이 시대 청년 25인, 교회에 길을 묻다
4. 교회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사명 발견, 일과 신앙 일치, 가정 만드는 ‘생활신앙인’ 꿈꿔라!

이 시대 청년들은 존경하는 멘토이자 인생의 선배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참 많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과 진로결정, 연애와 결혼, 취업과 부모로부터 독립,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의 균형 등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더 어렵고 답답했기 때문이다. 비상구를 찾고 싶어한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청년들의 물음에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 최성민 목사(대학부 본부장), 심희돈 장로(대학청년부 대표장로), 양상식 장로(허브 공동체 대표장로), 이미정 권사(iWe 대표권사)가 솔직담백하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한다는 메시지가 있었다.

/ 김미림, 이소정 기자

#청년들의 고민 1

진로결정과 정체성

“**꿈**과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보니 주로 부모님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진로결정하고 있어요.”

이미정 권사: “사실 이 문제는 청년들의 문제라기보다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까지 대신해주다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어릴 적부터 자신의 힘으로 한 일이 거의 없게 되죠. 진로결정, 직업선택, 심지어 배우자까지 부모가 결정해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 선택해주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가질 없는 존재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무엇인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지 궁금해요. 크리스천과 넌크리스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



대학청년부
리더십들이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물음에 답한 김승수 목사, 최성민 목사, 심희돈 장로, 양상식 장로, 이미정 권사(시계방향).

세요.”

최성민 목사: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 발견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양상식 장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고민 2

연애와 결혼

“**민**지 않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해도 되나요? 믿음 좋고, 능력 좋고, 성격 좋고, 외모까지 훌륭한 사람 만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미정 권사: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믿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 덕분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교제하거나 결혼한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심희돈 장로: “제 사위도 넌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지요. 배우자의 첫 번째 기준은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으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도 높습니

다. 무조건 넌크리스천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드시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승수 목사: “연애와 결혼은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일단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의 성비가 맞지 않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배우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조건은 가능성, 성실성, 기도 유무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대로 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양상식 장로: “서로 성격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공유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부부가 진정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고민 3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의 균형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직장에 다니면서 사역도 섬기고 있는데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심희돈 장로: “직업은 천직이자 부르심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곧 선교지이자 소명의 자리입니다.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범적인 직장인으로서는 기능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생활이 곧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곧 직장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지혜, 결단하는 지혜,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응원메시지

이미정 권사: “머리모만 아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최성민 목사: “기록, 사랑, 사명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김승수 목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대사입니다. 영적 정체성을 깨달으면 선택과 결정이 쉬워집니다.”

심희돈 장로: “신앙인은 삶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상식 장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연애와 결혼,
이렇게 준비하라



결혼도 비전이다!



이기복 목사
(〈결혼코칭〉, 〈성경적
부모교실〉, 〈성경적
아내교실〉 저자)

짧은 인생에도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전도서 말씀처럼 결혼도 자신의 인생 주기의 큰 관점 안에서 시기를 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바란다. 나는 대략 언제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후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플랜을 세우기 바란다. 결혼도 비전이 되어야 한다.

적령기의 연애는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한 탐색의 과정이다.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폭 넓게 사귀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자 하지만 만남의 기회 또는 모임과 장소로 찾아가지 않는다. 결혼을 하고 싶다면 열린 마음과 자세로 배우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지인이 누군가를 소개해준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만나 보아야 한다. 폭넓은 탐색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을 알아가야 한다. 아웃리치를 가서 고생도 해 보고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을 잘 알아갈 수 있다. 연애는 결혼을 위해 사람을 잘 사귀어보고 알아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나를 알리고, 상대를 알아가고, 서로 뜻과 비전과 마음이 잘 맞을지를 탐색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연애는 삼각형 구조와 같다. 차츰 꼭짓점

을 향해 만남의 폭을 좁혀나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폭넓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두루 만나고 알아간다. 그러는 중에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여러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다가 마음과 뜻이 잘 맞는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 사귀어 본다. 어느 정도 결심이 서게 되면,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시작한다. 그러나 완전 결정할 때까지는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며 건강하게 사귀다가 프러포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들이여, 사랑에는 모험이 필요하다. 상처 받을

이라고 생각하기에 늦어진다. 예전에는 단칸방에서 조촐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대세였을 때가 있었다. 살다가 TV 하나, 밥술 하나 장만하면 기쁘고 감사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세상 문화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프러포즈 하는 것은 어떻게? “나는 지금 부자도 아니고, 아파트와 자동차도 없지만 성실함과 믿음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함께 하나씩 일구어 가기 원합니다. 저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크리스천 가정은 달라야 한다. 성경적 복의 개념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적 가정관도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이웃과 나라와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과 사명을 늘 생각하기 바란다.

모든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하며 원한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좋은 배우자감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보석은 빛난다. 내가 보석이 되어 있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보석이란 내적, 외적, 정신적, 영적, 관계적 아름다운 성숙함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만날 배우자와의 거룩하고 흠 없는 관계를 위해 순결은 최고의 선물이다.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라.

완전한 배우자는 없다. 나도 완전하지 않다. 부족한 사람 둘이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숙해진다. 그러나 기본적인 조건은 책임감, 성실함, 순결, 열린 마음, 인내심, 그리고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조건만 있으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결혼하면 배우자가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꿈을 버려야 한다. 원래 행복이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소유한 사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결혼준비는 스스로 최고의 배우자감이 되는 것 인격의 성숙, 열린 자세, 인내심, 책임감 갖춰야

까봐 만남을 회피하기 보다는 사랑과 연애와 결혼을 위해 만남을 시도하라. 우리는 만남을 통해 배우고 성숙해진다. 만남을 통해, 나를 상대에게 알리고 또한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즘 모두 결혼을 늦게 하니깐, 나도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 결혼의 적령기가 있다. 빨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과 결혼하려면 보니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버젓한 직장이 있고 아파트도 준비해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가 좋은 신랑감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당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오래 사귀고 있는 형제가 프러포즈를 어려워하면, “우리 가난해도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뜰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평소 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결혼을 앞두고 성경적 돈과 재정관에 대해 배우고 정립할 것을 또한 권유한다.

결혼 후에도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자녀들에게도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을 행

강남C공동체, 전남 완도군 고금도 아웃리치

무너진 담을 세우고 그 위에 천국을 수놓다

태풍으로 무너진 담을 세우고, 그 위에 천국을 수놓았다. 예수님이 소중히 품은 한 마리 어린 양, 오병이어 광주리를 든 소년, 십자가가 예쁘게 그려진 아담한 교회, 신비로운 에덴동산, 바닷 속 풍경이 한눈에 펼쳐졌다.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림을 그냥 지나치는 이 하나 없었다. 그렇게 또 한사람에게 예수이야기가 전해졌다. 강남C공동체와 전남 완도군 고금도 장항갈보리교회가 함께한 아웃리치에서 있었던 일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강남C공동체가 그린 마을벽화 앞에서.

지난 25일 새벽 5시, 강남C공동체 사랑·겸손 다락방이 전남 완도군 고금도 장항갈보리교회로 아웃리치를 갔다. 서울에서 고금도까지 거리가 상당하다. 차창 밖으로 안성, 망향, 정안, 군산, 김제, 고창, 영광, 강진 등 휴게소 몇 개를 지나쳤는지 모른다. 그래도 일행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벌써 그림 같은 해변에 도착해 있는 것 같았다. 6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고금도에 도착했다. 그런데 기대했던 그림 같은 해변이 아니었다. 바다가 없었더라면 섬인 줄도 모를 정도였다. 험한 산골마을 같았다.

고금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속해있다. 2007년 강진군 마량면과 고금도를 연결하는 길이 760m의 다리가 완공된 이후 섬 같지 않은 섬이 되었다. 고금도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다. 왜군을 소탕한 이순신 장군의 기개가 깃든 곳이다.

고금도 장항갈보리교회 고영석 목사

신록이 우거진 논밭과 잔잔한 해안선을 따라 가다보니 고금면 고금서로 474번지에 위치한 장항갈보리교회가 보였다. 고영석 목사가 1993년 개척한 교회다. 고 목사는 1993년 12월부터 지인도, 연고도 하나 없는 고금도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섬에서 목회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 지방에 있는 교회를 찾던 중에 고금도가 고향인 대학원 동기의 권유로 이곳을 방문했다. 한참을 둘러봤는데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리셨다.

결국 고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무런 연고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고금도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개척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를 옮겨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학생수가 40명이 넘어 장소가 협소해진 것이다. 이듬해 봄 한 성도가 지금 교회가 들어선 땅을 헌납했다. 기쁨도 잠시 뼈대한 재정사정에 인부를 쓸 수 없었던 고 목사와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을 손수 나르고 쌓았다. 해맑게 웃으며 자기 집 짓는 것처럼 봉사했다. 그 손길 덕분에 지금의 장항갈보리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를 새로 짓고, 채무도 서서히 갚아나가면서 고 목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도시교회와 연결해서 사역을 해보고 싶었던 것. 기도하던 중 2014년 드디어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강남C공동체와 연결이 된 것이다.

지역주민과 교회 위한 맞춤형 아웃리치

강남C공동체는 올해 3년째 고금도를 찾았다. 사실 올해 고금도 아웃리치를 실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 5월 강남C공동체가 고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웃리치 일정을 이야기하려면 참이었다. 그런데 고 목사가 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해도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고 목사가 왜 갑자기 아웃리치를 거절한 것일까. 강남C공동체 담당 이기진 목사를 비롯한 리더십들은 고 목

사의 의중이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그길로 고금도를 찾아왔다. 고 목사에게 아웃리치를 거절한 이유를 듣고 또 한번 놀랐다. 내용인즉 대형교회에서 아웃리치팀원들이 수십 명 왔다 가면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대형교회 성도 몇 십 명이 와서 먹고 자고 가면 그 후유증이 너무 큼니다. 대부분 이·미용이나 의료사역을 준비해 오시는데 사실 고금도는 그런 사역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고금도는 섬 같지 않은 섬이다. 병원이나 보건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미용실도 꽤 많다. 대형마트나 펜션, 실내골프장도 있다. 전복이나 광어 양식으로 주민들의 수입도 상당한 곳이다. 도시교회에서 의사 몇 명, 미용 기술 배워 온 봉사자가 와서 며칠 봉사해봤자 고금도 주민들한테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 아웃리치 팀원들이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한다고 해도 남은 뒷정리 하느라 고 목사 사모가 한 달 동안 몸살을 앓을 정도였다고. 고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강남C공동체 리더십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기존에 해왔던 공동체 아웃리치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을 하고, 교회에 절대로 부담을 주지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시 한 번 고 목사와 상의 끝에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사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렇게 올해 고금도 아웃리치가 성사되었다.

강남C공동체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아웃리치가 아니라 다락방별로 실시하는 소규모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인원도 최대한 분산했다. 사랑·겸손 다락방은 고금도, 희락·온유

다락방은 안면도, 화평·온유 다락방은 강원도 강촌, 충성·소망 다락방은 경남 남해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교회에서 숙소와 식사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 주변 펜션과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다. 교회에 절대로 불편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아웃리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줌마면 어떻게 소년이면 어떻게?

고금도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벽화그리기 작업에 돌입했다. 한낮의 피약벌이 무척 뜨거웠지만 팀원들의 열정은 그것보다 더 뜨거웠다. 장마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도 기우였다. 하나님이 화창한 날씨로 바꿔주셨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하루 만에 벽화를 완성해야 했다. 팀원들 모두가 붓을 들고 페인트를 적셔 칠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벽화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노란색 원이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나비로 변신했고, 섬세한 붓질을 몇 번 더하자 꽃이 활짝 피었다. 오병이어 광주리를 든 소년의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무너진 담장을 보수한 벽에 아담한 교회도 그렸다. 이번 벽화그리기 사역을 주도한 신동일 작가가 크게 감격해했다. 무너진 집에 성벽과 교회를 그렸더니 생명이 움트는 것 같다며 흐뭇해했다. 벌써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림구경 삼매경에 빠졌다. 여기저기서 자기 집 담벼락에도 그려달라고 아우성이었다. 한 주민은 고금도는 낙지가 유명하다면서 낙지를 그려달라고 요구했다. 예정보도 없는 낙지 그림이 추가됐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에리 권사가 “색칠하고 보니 오병이어 아줌마가 예쁘네”라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강리나 작가가 “아며, 아줌마 아니고 소년이에요”라고 눈치를 줬다. 이 권사가 멋쩍은 듯 웃으면서 “난 또 후덕해서 아줌마인줄 알았지. 아유, 아줌마면 어떻게 소년이면 어떻게? 오병이어가 중요한 거지”라고 말해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그렇다. 소년이면 어떻게 아줌마면 어떠랴. 이곳에 에덴동산과 교회가 세워졌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하지. 곁에서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장항갈보리교회 김하근 장로가 “민지 않는 주민들이 벽화를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을 겁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고금도에서의 짧지만 알찬 일정이 끝났다. 서울로 돌아가려는 일행의 손을 잡고 한 할머니가 수줍게 말했다.

“내년에 또 와.”

2016 여름 아웃리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관리분과위원회, 2000선교, 안전수칙 및 보고서 작성 요령 발표

2016년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분과위원회와 2000선교 본부는 아웃리치 기간 중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아웃리치 보고서 작성요령을 발표했다. 건강한 아웃리치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이에 대해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는 “2000선교본부는 성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름 아웃리치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교회에서 제시한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고, 박현규 장로는(안전관리분과위원장)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면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바란다”고 성도들을 응원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아웃리치 실시 전, 실시 중, 실시 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이행사항을 정리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안전관리분과위원회 안전수칙

아웃리치·수련회·워크숍 점검 사항

현장 점검(답사) 기본 사항

- 1) 숙소 확보 여부(남녀, 유아, 침구류 등).
- 2) 취사장 위생 및 안전.
- 3) 화장실 및 세면장 등의 위생환경.
- 4) 병의원, 경찰서(파출소) 소방서 등의 안전 환경.
- 5) 산사태 및 하천 범람, 침수 우려 여부.
- 6) 야생동물 출몰 여부.
- 7) 현지 관리자(또는 목회자, 선교사)와의 충분한 정보 교환.

교통 및 이동

- 1) 항공기나 선박으로 대량 인원 이동 시 분산 이동.
- 2) 전세 버스 차령 5년 이하. 보험 가입 및 운전자 자격 버스회사에 확인.
- 3) 전세 버스 이용 시 안전자 지정 인원 파악 및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지도.
- 4) 출발 전 기사가 비상시 행동요령(소화기 위치, 비상시 수동으로 문 여는 방법 및 탈출방법 등) 안내방송.
- 5) 가무금지 및 여러 대 이동시 일렬로 맞추어 가는 무리한 대열 운전 금지.
- 6) 해외 아웃리치의 경우 여권, 비자 및 여행지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현황 등 확인.
- 7) 국내 개인 차량 이동시 엔진오일, 냉각수, 와이퍼 세정액, 브레이크패드, 방향지시램프 등 사전 점검.
- 8) 개인 차량 여러 대 이동시 차량 안전거리 유지, 과속 및 신호위반 절대 금지. 후미 차량이 많이 쳐졌을 때 속도를 늦추거나 안전지역에서 대기.

행사장 이용 시 주의 사항

- 1) 전기, 소방, 시설 등의 유지 및 안전 여부 확인.
- 2) 행사 지원 시설(무대, 조명, 계단, 스피커, 비상구 등) 안전 여부 확인.
- 3) 안내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농촌 봉사 활동

- 1) 여름 한낮 무더위 일사광선 피할 것.
- 2) 작업 장갑, 신발, 긴 바지, 긴팔 의류, 모자 착용.

- 3) 농기구(호미, 낫, 삽, 곡괭이 등)는 정비가 잘된 것 사용.
- 4) 농사기계, 제초기나 중장비 이용은 숙달된 현지인에 의뢰.
- 5) 벌집, 뱀, 산돼지, 유기견 등 주의.

물놀이 안전 수칙

- 1) 수영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의 물놀이를 삼간다.
- 2)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근육 경련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 3) 팔다리에 물을 적신 후에 들어간다.
- 4) 식사 후엔 30분 후 들어간다.
- 5) 음주 물놀이를 절대 하지 않는다.
- 6) 수영이 서툰 사람은 튜브 및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7) 혼자 깊은 저수지, 호수에 가지 않는다.
- 8) 무리한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 9) 물 먹이기와 같은 물속에서의 심한 장난은 삼간다.
- 10) 파도가 높을 때 수영은 삼간다.

식중독 예방 십계명

- 1) 살균, 세척, 신선한 식품을 선택한다.
- 2) 철저히 가열한다.
- 3)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한다.
- 4) 조리한 식품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다.
- 5) 냉장보관한 식품도 재가열하여 섭취.
- 6) 조리 전과 다른 용무를 본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7) 사먹는 음식도 바로 먹거나 냉장보관.
- 8)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면 먹지 않는다.
- 9) 식중독 예방 주사를 맞는다.
- 10) 만약 식중독에 걸렸다면 응급조치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한다.

해외 아웃리치 안전 요령

해외 아웃리치 점검관리 기본사항

- 1) 협력 필드 팀의 관리체제와 역량 점검
- 현지 팀이 NGO나 선교단체인지 확인
- 현지 팀은 효과적인 정보망을 가지고 현지체제 운영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팀인가? (위기예측과 비상대책)

- 현지 팀이 방문 팀의 사역 내용과 사역 일정을 사전에 잘 파악하고 있는가?
- 2) 방문 팀의 구성과 오리엔테이션
- 사역의 특성과 목표, 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
- 현지 기후, 주변 환경과 구성원의 건강 등 개인적인 여건을 객관적으로 고려.
- 사전에 사역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사역관련 교육, 훈련.
- 사전에 필드 팀과 협의된 위기관리 수칙에 대해 교육, 훈련.
- 팀의 리더십 그룹(팀 리더 + 조장/분야별 위기관리 담당)이 준비와 훈련에 팀워크를 잘 이루고, 효과적인 준비 철저.
- 3) 방문 팀 자체의 위기관리 대책
- 팀 자체적인 위기관리 체제 구성(CMT: 팀 리더/ 통신, 연락업무(대변인)/ 안전요원/ 기록담당/ 케어담당).
- 효율적인 팀 운영과 위기관리 위해 3-4명 단위로 조편성 및 조별 리더 임명.
- 구성원들에게 현지 팀의 가상위기 시나

- 리오에 따른 비상계획(CP) 숙지 철저.
- 현지 팀 요청의 현지 행동지침을 철저히 준수.
- 사역기간 중에는 조장, 전체 리더십의 지시에 절대적 순종.
- 효과적인 위기관리는 오직 위기에 대한 회피와 사전예방.
- 필드에서 위기 발생시 일종의 전시 비상체제로 전환.
- 4) 출국 전 준비사항
- 건강진단/ 예방접종 실시.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의 소견참조, 복용 상비약 여유분 준비.
- 개인 신상파일 작성(비상연락처, 혈액형, 여권사본 등의 파일 2부 작성).
- 여행자 보험 일괄 가입(보험증 휴대).
- 서약서, 손해배상청구 불제기 각서 작성.
- 영적, 신체적 단련과 준비(집중적인 기도, 체력단련).

▶ 2000선교 보고서 작성 방법

해외 아웃리치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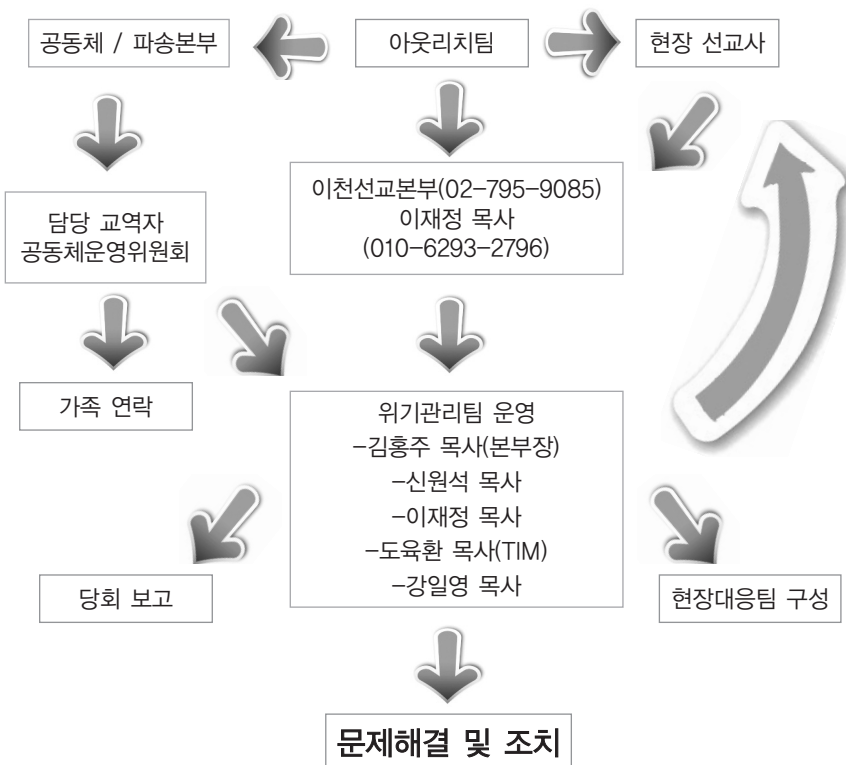
- 1) 아웃리치에서 돌아온 이후 팀 평가와 간증문 작성.
- 2) 선교지를 향한 지속적인 섬김과 중보기도(목요선교집회, 매주 목 오후 7:30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

아웃리치 관리시스템 사용법

- 1) 2000선교 아웃리치 관리 시스템 접속

- 후 로그인(소속 공동체나 캠퍼스의 아이디).
- 2) 공지사항을 확인 후 양식 선택.
- 3) 소속 팀을 입력 후 보고서 작성.
- 4) 간증문 및 사역을 나타내는 대표 사진, 사역 동영상, 사역 사진을 첨부(간증문 5개-최대 5MB, 대표 사진-최대 5MB, 동영상 1개-최대 200MB)

아웃리치 비상연락 및 위기대응 체계도



통일세미나 ‘북한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로드맵’

7월 9일, 오후 3시 양재 하용조홀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주최하는 통일세미나 ‘북한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로드맵’이 7월 9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하용조 홀에서 열린다. 통일위원회의 첫 대외사역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일준비는 북한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북한사람들의 의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뤄진 통일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입을 통하여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통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통일세미나 ‘북한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로드맵’은 총 2부로 나뉜다. 1부 ‘통일 로드맵’에서는 이장로 장로가 사회를 보고, 김광진 위원(전 평양컴퓨터대학교수,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이 발표한다. 2부 ‘통일 로드맵

실천방안’에서는 고건 장로가 사회를 보고, 김홍광 대표(전 함흥공산대학교수, 현 NK지식인연대)가 발표한다.

‘북한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통일세미나에서는 ‘북한사람들이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쟁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통일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온누리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통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단 7일까지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통일위원회는 통일세미나 ‘북한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로드맵’에 이어서 11월에 각 분과별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010-2631-053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통일세미나 일정

14:50~15:00	찬양
15:00~15:05	대표기도: 이원로 (전 인제대학교 총장)
15:05~15:10	인사말: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15:10~16:30	1부: 통일 로드맵
	· 사회자: 이장로 (전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자: 김광진 (전 평양컴퓨터대학교수,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자: 김태산 (전 조선체고신발기술합작회사 사장, 현 선광 영수학원 원장)
	· 토론자: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
16:40~18:00	2부: 통일 로드맵의 실천방안
	· 사회자: 고건 (전 전주대학교 총장,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자: 김홍광 (전 함흥공산대학 교수, 현 (사)NK 지식인연대 대표)
	· 토론자: 주승현 (전 북한측 비무장지대 심리전방송요원, 현 전주기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토론자: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남북통합연구소 소장)
18:00~19:30	저녁식사 (장소: 교회식당)

통일위원회가 통일준비 선봉에 서 있다

통일위원회 1만 통일사역자 양성, 통일한국을 기독교국가로!

온누리교회의 통일준비는 20년 전부터 시작됐다. 북한을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으로 탈북사역, 통일사역으로 차례대로 발전했다. 2014년 10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국내주요 교회 지도자 20명이 기독교 중심의 통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독일을 탐방한 적이 있다. 독일의 통일이 동독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복음중심의 통일이 성사된 역사의 현장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온누리교회가 통일준비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다. 온누리교회가 탈북사역에 앞장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5년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며 통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그 때부터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발족을 준비했다. 약 1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올해 1월 1일 당회소속으로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황의서 위원장과 15명의 통일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통일위원회의 다섯 가지 비전과 역할

통일위원회의 비전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통일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이룬다. 둘째, 통일한국을 열방에 빛을 발하는 기독교국가로 세운다. 셋째, 동아시아가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연합하는 중심에서 통일한국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넷째, 북한사람들을 중앙아시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운다. 다섯째, 온누리교회 2천1만 비전에 발맞춰 1만 명의 통일사역자를 세운다. 이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는 산하에 본부(기도), 의료, 교육, 경제, 사회개발, 문화예술, 통일아카데미를 비롯한 총 7개 분과를 만들었다.



통일위원회 원례회에서 케네스 배 목사를 초청해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본부(기도)분과는 각 분과의 효율적인 연합과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를 담당한다. 의료분과는 의료전문인 사역자를 양성한다. 교육 분과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사가 없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북한 학생들은 최소 세 과목(사회, 역사, 국어)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남한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세 과목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회복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 북한의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중고등학교)학생을 합친 수가 370만 명이다. 학생 30명당 교사 1명을 배정한다고 가정하면 통일된 이후 통일교육을 받은 교사 12만 5천명이 필요하다. 교육분과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헌신할 기독교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 분과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으로 무장된 기업인들을 양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개발분과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도시, 주택, 교통, 보건, 의료, 공중위생, 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사업을 감당할 전문인들을 준비시키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국가가 투자하고, 운영하겠지만, 요양원, 어린이집, 고아원 같은 복지시설 운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분과는 통일이 되면 남북을 오가며 각종 교류를 통하여 북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사역을 준비한다.

통일아카데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통일사역자를 세우는 훈련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한다. 통일사역은 온누리교회만의 사역이 아니다. 한국교회 전체 사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 선봉에 통일위원회가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독일 통일 원동력은 ‘기도’

통일은 정치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통일은 통일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기에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 사례를 보면 통일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공산주의가 서독민주주의로 흡수된 것이 사실이지만 서독이 강제적으로 동독을 흡수한 것은 아니다. 동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선택한 것이다. 동독 주민들 변화의 중심에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교회가 있다. 니콜라이교회는 8년 동안 월요평화기도회를 열어 기도하면서 통일을 준비했다. 1989년 10월 9일에는 니콜라이교회 월요평화기도회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 평화적 촛불 시위를 했고, 7만여 명의 동독시민들이 동참했다. 기도회와 평화적 시위는 확산되어갔고, 11월 4일에는 베를린에서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에 당황한 동독공산당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 생방송으로 동독과 서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여행자유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동독공산당 대변인 귄터사보프스키는 여행자유화 시기를 묻는 이탈리아 기자의 질문에 실수로 ‘지금 즉시’라는 답변을 하게 된다. 그 즉시라는 말을 들은 수만 명의 동독시민들이 11월 9일 밤 베를린 장벽을 넘었고, 독일통일은 이루어졌다.

독일의 통일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니콜라이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독일교회들의 기도와 준비가 있었다.

▶▶▶▶▶

* 위 글은 황의서 장로 저 <독일 통일 이야기>, 주도홍 교수(백석대, 역사신학) 저 <독일교회를 통해 배우는 한국교회의 통일노력>를 참조해서 작성했다.



북한사람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에 복음 전하는 것이 통일의 첫 걸음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온누리교회가 앞장서 달라!”

통일위원회가 7월 9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북한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로드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 앞서 지난달 27일 대표적인 탈북인사를 만났다. 홍순경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이 그 주인공이다. 그에게 북한사람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와 크리스천이 통일을 준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홍 위원장은 “북한지도층은 적화통일을, 주민들은 개혁개방을 통한 자유민주 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통일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홍순경 위원장은 탈북 전 주태국 북한대사관 과학기술, 무역 참사관을 역임했다. 탈북후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북한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북한지도층이 생각하는 통일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지도층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습 정권유지와 독재 통치를 위해 존재합니다. 북한지도층이 생각하는 통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입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전쟁을 일으켜서 통일하려는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평화통일입니다. 말이 좋아서 평화통일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이 아닙니다. 종북정권을 수립하고 그를 통해서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등을 철폐한 다음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입니다. 두 가지 모두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통치를 남한까지 연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북한지도층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제통일방안, 각종 평화협정을 앞세워 꾀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만

일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남한과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미군은 철수해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전쟁 없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억압과 통제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통일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남북통일보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 문화, 의식수준은 통일과 거리가 멉니다. 지금 상태로는 주변국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통일이 필요합니다.

단계적 통일의 첫 단계는 개혁개방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북한주민들이 주도하는 내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정권을 세운다면 이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북한주민들이 세운 개혁개방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순조롭게 포기할 것입니다. 남한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북한

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개혁개방 정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북한의 경제, 문화, 의식 수준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안에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남한의 70-80%까지 올라 올 것입니다. 통일 비용과 통일 이후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 들 것입니다.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면 서로의 이질성도 완화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남북선거를 통한 통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인 평화통일입니다.”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북한 개혁개방의 첫 걸음입니다. 북한지도층들은 종교를 ‘침략의 선각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습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체포된 북한주민들은 사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북한지도층들에게 교회와 예수님이 그만큼 무서운 존재인데 북한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인들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행동은 생각이 장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는 개혁개방 정부수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북한주민들이 개혁개방 정부수립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살기 위해 탈북하는 북한주민을 한명이 라도 더 살려야 합니다.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면 해외에 탈북민 캠프를 만들어 돌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을 통로로 북한에 복음이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앞선 생각과 행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십 수 년 동안 탈북민들을 품었기 때문에 통일준비에 앞장설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통일준비에 앞장선다면 다른 교회들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 주십시오.”

*인터뷰 전문은 온누리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News.onnuri.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온누리!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의 역할

통일은 한국인들 모두가 책임지고 실천하여야 할 21세기의 과제이다. 특히 통일은 신앙인들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하고 평화로운 통일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사이의 화해로 상징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가능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눈물 흘리며 부른다고 해도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민족감정 이상의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통일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조금씩 바뀌면서 된다.

평화통일은 삶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한국사회가 통일공동체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 개혁의 우선과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연약공동체

가 뿌리내리게 하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25%에 달하는 기독교 인구를 대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통일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사회문화적인 이질감 극복에도 앞장서야 한다.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북한바로알기’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남북한 문화교류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일학교 커리큘럼에 북한을 바로 알고, 복음통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업적인 대중문화가 주류 문화로 자리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화 개혁을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러한 문화에 편입된다는 것은 커다란 도덕적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통일을 위한 온누리교회의 노력				
사역	종류	지역	시간 및 장소	문의
	통일위원회			이성주 총무 010-2631-0536
기도모임	북한중보 기도모임	서빙고	매주 월 오후 7시30분 선교관 403호	송웅주 형제 010-8591-8236
		남양주	매주 주일 오전 10시30분 식당	한상천 집사 010-2265-2005
		대전	매주 주일 오후 2시 403호	김동욱 집사 010-3526-4754
교육 프로그램	북한선교학교	서빙고	연 2회(서빙고, 양재), 7주 과정	김정섭 총무 010-3301-2897
	북한선교브리핑		매월 첫째 월 오후 7시30분 신관 402호	박상원 총무 010-6470-2414
예배 공동체	하나공동체	양재	매주일 오후 2시 JDS홀	장형식 총무 011-515-6174
	한터공동체		매주일 오전 10시 한터 명문빌딩 6층	송웅주 형제 010-8591-8236
탈북민지원	하나원 방문나들이 사역	안성 화천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 예배와 순모임,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다.	유주석 집사 010-2004-1022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이 정의롭게 조화되는 문화로 개혁되었을 때 북한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통일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문화개혁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건전한 문화정착을 돕는 시민운동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독려해야 한다.

평화통일은 현실인식과 신앙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평화통일에 신앙적인 차원이 요구된다는 것은 자신

의 유익만을 위한 아집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앙은 삶이다. 북한의 형제자매는 나의 형제자매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은 백지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먼저 통일공동체에 걸 맞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개혁 작업의 주체가 되면 좋겠다. 복음통일을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계를 어떻게 품어야 할까.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 회장을 맡고 있는 양호승 장로를 만나면 꼭 묻고 싶었다. 그는 미국에서 다국적기업과 CJ제일제당에서 경영자로 일했던 인물이다. 전문경영인이 월드비전의 회장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2012년부터 월드비전 회장으로 일하면서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다. 특히 북한의 아이들을 가슴깊이 품고 있다. 양호승 회장은 온누리교회 장로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위원, 월드비전의 통합북한사역위원회 위원장,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월드비전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 회장 양호승 장로.

사진제공=월드비전

양호승 장로는 온누리교회를 만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1989년 2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었다. 자녀들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 자녀들을 위해 영어 예배를 찾던 중에 온누리교회를 알고 오게 됐다.

“저는 활발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와 정말 잘 맞더라고요. 새신자들을 모아 예배하는 열린예배를 열심히 섬기다가 미국으로 일반사역자로 파송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겼더니 이 모든 사역이 하나도 지지 않고 기쁨이더라고요.”

양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차타고 이동할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을 듣다고 했다. 특히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아서 좋다고 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불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회장

“저는 월드비전에 파송된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그는 월드비전 회장으로 섬기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보내심이라고 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훈련되고 파송 받

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었다.

“저의 전환점이 된 곳이 바로 월드비전입니다. NGO는 제가 일해 왔던 일반 기업과 많이 달랐지만 하나님이 저를 월드비전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다고 확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동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월드비전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양호승 장로는 66년의 역사를 가진 월드비전의 8대 회장이다. 2012년 1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취임식을 했다. 월드비전은 1950년 밥 피어스 목사와 한경직 목사가 한국전쟁으로 남겨진 고아와 과부들을 돕기 위해 설립했다. 1991년까지 해외로부터 후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 후원하는 곳으로 바뀐 유일한 곳이다. ‘사랑의 빵’, ‘기아철폐 24시간’ 등으로 시작된 다양한 자체적인 모금 활동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양 장로가 월드비전을 섬기게 된 것도 바로 월드비전의 명확한 비전 때문이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다는 비전이 마음에 들어 주저 없이 월드비전에 오게 됐다고 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그것을 이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NGO로 성장하여 98개국에서 일하는 월드비전의 4만 6천명의 직원이 모두 이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양 장로의 사무실에 월드비전의 핵심가치가 담긴 글귀가 걸려있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었다.

“월드비전 핵심가치는 6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삶, 행동, 말,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친히 내어주실 만큼 사람을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빈곤 등 복잡한 문제를 다양한 방면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더불어, 후원자, 교회, 학교 등이 동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응답합니다. 긴급구호는 늘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달려갑니다.”

월드비전은 국내복지사업과 국제개발사업, 국제구호사업, 옹호사업 등으로 총체적 사역(Holistic Ministry)을 하고 있다. 신체적(건강), 물질적(경제), 사회적(문화), 제도적(구조), 심리적(자유), 영적(하나님과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일구어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 개종을 전제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차별 없이 들어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전 세계 33개국 129개 사업장에서 자립마을을 이루도록 돕는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립에 초점을 맞춰 주민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식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45개국에 설치 및 수리한 식수원이 1,133개에 달한다. 이를 관리·운영하는 식수관리위원회가 792개나 된다. 긴급 상황 대응과 재건복구 사업을 포함한 국제구호사업도 활발하게 실

시하고 있다.

양 장로는 무엇보다 아동권리를 찾는 옹호 사업을 강조했다.

“옹호사업은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생각하는 월드비전의 핵심 사업입니다. 아동, 가난한 자를 위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세워 활동하고, 세계적으로는 아동의 폭력, 노동, 조혼 등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학교를 설립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야 씨가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중보기도모임과 통일준비

월드비전에서는 북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1994년 월드비전이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북한사업은 긴급구호 사업 이외에 육아원이나 병원 지원,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농업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 장로는 통일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다. 동독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독일이 통일되고 통합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부터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겸임교수,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2009년 온누리교회에 북한중보기도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북한중보기도모임이 1996년부터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고 있고, 기도의 불씨가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북한중보기도모임을 구심점으로 온누리 북한사역팀과 북한학교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양 장로는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통일 된 후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통일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정치적인 것이라면 통합은 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어우러짐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통합 과정을 통해 서로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부연합예배에서 대학생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Yes! I’m a Christian”

허브, 하늘, Pole2공동체 연합예배

지난달 26일 온누리교회 대학부 3개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허브, 하늘, Pole2공동체가 ‘Yes! I’m a Christian’을 주제로 첫 번째 연합예배를 드렸다.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열린 연합예배에는 대학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Yes! I’m a Christian”을 외치며 참된 크리스

천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다. 최성민 목사(허브공동체)는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크리스천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정체성이 살아나고,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학부 연합집회에는 가수 박지현(V.O.S)과 조은혜 자매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가수 박지현은 “하나

님의 크신 사랑을 알수록 힘이 난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대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고 대학생들을 응원했다. Pole2공동체 김대원 형제(24세)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다음 주 양지 온누리교회 창립 4주년

10일 치유집회, 7월 8일~8월 19일 금요성령집회

양지 온누리교회가 다음 주일(10일)에는 창립 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손기철 장로 초청 ‘Heavenly Touch 치유집회’를 개최한다. 7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금요성령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영진 목사(7월 8일), 도육환 목사(7월 15일, 8월 19일), 박종길 목사(7월 22일), 이상준 목사(7월 29일), 이기훈 목사(8월 5일), 김성진 장로(8월 12일)가 강의할 예정이다. 숙소(비용 개인 부담)도 마련되어 있다. 7월

24일에는 20여 명의 클래식 음악 전문인들로 구성된 ‘Life Rord Singers’ 특별초청 찬양콘서트가 열린다. 문의: 031-437-968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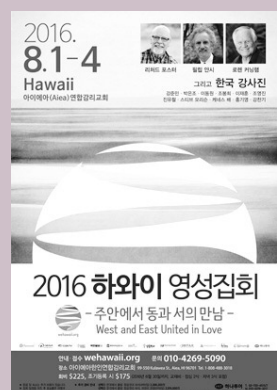
수원, 강동 여름 아웃리치 발대식

지난달 26일 수원 온누리교회와 강동 온누리교회가 여름 아웃리치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겠다고 선포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웃리치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기도도 했다.

수원 온누리교회는 해외 10개국 14팀 국내 5팀 약 470여 명, 강동 온누리교회는 해외 4개국 5팀 국내 5팀 약 300여 명이 아웃리치를 떠난다.

/ 김영선 기자

2016 하와이 영성집회



2016 하와이 영성집회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주안에서 동과 서의 만남(West and East United in

Love)’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영성집회에서는 리처드 포스터 교수, 작가 필립 안시, 이동원 목사, 이재훈 목사, 박은조 목사, 강준민 목사, 조봉희 목사 등이 강의할 예정이다.

하와이 영성집회는 세계적인 영성대가들의 강의도 듣고, 쉽도 얻을 수 있는 1석2조 안정맞춤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참가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문의: www.wehawaii.org

김숙경 간사 02-570-7438

/ 김현준 기자

물품을 기증해주세요!

한터, 9일 모금바자회 개최

7월 9일 특별한 바자회가 열린다. 탈북사역을 하고 있는 한터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한터에서 백두까지’를 주제로 개최하는 연합수련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모금바자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도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중고물품(의류, 식기, 가방, 악세서리, 악기, 체육기구, 신발, 장난감 등)을 기증받고 있다. 서빙고 신동아 쇼핑센터 1층 사랑의줄이기 매장에서도 기증을 받는다. 양재 등 국내 캠퍼스에서 기증을 원하면 한터 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한터는 8월부터 탈북 여대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탈북 여대생 기숙사에는 5~6명의 탈북 여자 대학생들이 생활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주거가 필요한 탈북 자매라면 지원할 수 있다. 2층 침대, 6인용 탁자와 의자, TV, 냉장고, 세탁기, 식기 등 기숙사에 필요한 물건도 기증받고 있다. 탈북 여대생을 위한 기숙사에는 여자 사감이 상주하고, 아침과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02-3463-9686(한터)

02-3215-3434(사회선교부)

한터위치: 강서구 가양역 6번 출구 명문 빌딩 7층

/ 이소정 기자

나눔장터, 기증이나 구입 가능



나눔장터는 서빙고 지하 1층 식당 뒤편에 위치해 있다.

서빙고 나눔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기증받고 있다. 서빙고 나눔장터는 성도들이 기증한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역이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회선교에 사용된다. 의류, 서적, 액세서리, 식기구 등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기증 받는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식당 뒤편에 있는 나눔장터 회수함에 물품을 넣으면 된다.

나눔장터에는 물품을 기증하는 재미도 있고, 사는 즐거움도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지게 차려입어도 1만원이 들지 않는다.

박미란 성도는 “나누면 나눌수록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 성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선교 팀장

010-8752-2222

/ 김영선 기자

CGNTV, 나눔 프로젝트 실시

고향교회 섬김, 미디어 아카데미 개최

CGNTV가 이번 여름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향교회 섬김’과 ‘미디어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그동안 지역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기 위해 기획했다. 고향교회 섬김은 충북 청양과 전북 장수에서 농작물 수확, 어르신 섬김, 교회시설 보수, 마을 잔치 등을 할 예정이다. CGNTV 직원 100

여 명이 참여한다.

미디어 아카데미는 CGNTV 직원들의 재능 나눔이다. 스피치교육, 방송촬영, SNS활용법 등을 주제로 청주 상당교회(7월 5~7일)와 광주 월광교회(7월 13~15일)에서 진행된다. 지역교회 목회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일본어 일대일 제자양육 간증



/ 서정원 집사(관악금천공동체)

지난 3월 일본어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어느 때처럼 묵상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날따라 이 말씀이 “내가 전에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니?”라는 음성으로 들렸다. 그리고 2010년 40일새벽기도회를 떠올리게 했다. 당시 하용조 목사가 러브소나타 집회에 대한 간증을 하셨다. 일본선교에 무지했고, 거리감마저 있었던 나는 하 목사의 말씀에 반신반의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준 일본어 어디 있니?”라는 음성이 들렸다. 나도 모르게 “그거 쓰지 않은지 한참 됐어요. 이미 버렸는데요”라고 답했다. 하나님은 다시 내게 “내가 준 걸 왜 네 마음대로 버리니?”라고 말씀하셨다.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이 밀려왔다.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일본어를 다시 시작했다. 우선 <생명의 삶>을 일본어로 묵상하면서 어휘력을 회복시켜 나갔다. 일본어 예배부에서 봉사하고, 중급 일본어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일본인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다. 2013년 남편의 근무지 이동으로 2년 동안 일본어 <생명의 삶> 외에는 일

본어를 접하지 못했다. 2년 뒤 다시 서빙고로 돌아와서 글로벌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을 공급받는 자리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본어로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한다. 한번은 묵상 중에 “두 개의 막대기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겔 37:17)는 말씀에서 두 개 막대기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보였다. 이 말씀처럼 일본어가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나에게 일본어는 스가라서 14장에서 나오는 감람산과 같다. 처음에는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었지만 그곳에 주님의 발이 서니 상황이 바뀌었다. 그 산이 갈라져 골짜기가 되었던 것처럼 걸림돌이 피난처로 바뀌게 하셨다. 또 말씀에서 스가라는 그곳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슥 14:5)고 했다.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일본인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나누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려 한다. 그곳이 감람의 골짜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최현진 집사(한강공동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다. 전도할 기회가 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중요성을 알면서도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목사님 말씀, 믿음의 동반자들을 통해 나에게 지속적으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심어주셨다. 그 덕분에 전도는 마땅히 해야 일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어려웠다. 말을 꺼내도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며 생각하던 중에 온누리전도학교를 만나게 되었다.

온누리전도학교는 전도를 위한 전문암기, 노방전도훈련, 복음전도 경험담과 간증, 반대 질문에 대한 답변 등 전문적인 훈련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훈련 자체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이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영적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암기한 성경구절들은 전도를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되어 주었다.

훈련 중에 읽은 필독서에서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순종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전도대상자에게 집중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전도는 영적전쟁이므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시인해야 한다. 또한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갈 뿐이다.

훈련 과정 동안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간증, 섬겨주신 조장님들을 통해 전도자에게는 순종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고 힘써 전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일에 쓰임 받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직 입술이 잘 안 떨어지고 어색함이 남아 있지만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씨 뿌리는 일에 힘을 것을 다짐한다.

대학청년부 수련회 간증



/ 김빛나 자매(SNS공동체)

만지셨고, 만나주셨고, 사랑해주셨다

수련회를 가기 전 나에게 몇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 고민들을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씩 깨닫게 해 주셨다. 나의 기도제목은 섬기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었다. 예배 때마다 괴로움과 아쉬움과 자책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임은 미 목사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

“빛나야 매일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 깊이 예배하렴. 그러면 섬김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녁집회에서는 SNS공동체 청년들의 비전에 대해 기도했다. SNS공동체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한 손을 번쩍 들게 하셨다. 그리고 중보기도 해야 할 비전의 땅을 보여주셨다. 또 한쪽 손을 높이 들게 하면서 그 비전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다. 중국 텐진에서 받았던 방언과 다른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 순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 하셨다. 기도를 하고 순원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모든 순원들이 부

둥켜안고 울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그제야 “아, 이제 우리가 정말 깊어졌구나. 이제 바로 서로 사랑하는거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반드시 함께 있어줘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나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죄를 회개시키셨다. 수련회 마지막 날 강사 크리스티김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됐다. 말씀처럼 살기를 결단했다.

하나님은 수련회를 통해 분명하게 이끄셨다. 내 안에 갈등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 번 결단하게 하셨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나를 만지셨고, 만나주셨고, 사랑해주셨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셨다.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일본어예배 네팔 아웃리치 간증



/ 김영란 자매(일본어예배)

소중한 경험, 잊지 못할 경험

지난해 4월 네팔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 진도 7.8규모의 지진으로 8천4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도우려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팀에서는 아웃리치 팀원들의 일정을 조율해가며 헌옷과 부채 등의 물자를 확보했고, 한국팀에서는 티셔츠와 기도문을 제작했다. 네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서 티셔츠를 제작했는데 당장 네팔에 가져가야 할 티셔츠가 부족했다. 더 제작하면 될 일이었지만 예산이 없었다. 일단 네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상을 조사하고, 재료를 직접 골랐다. 주말날 예배를 드리고 더치커피와 티셔츠를 판매했다. 판매금액은 자유롭게 내는 것으로 정하고 네팔 사람들을 위한 마음으로 헌금을 부탁했다. 티셔츠 200장을 만들 수 있는 헌금이 들어왔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사역하시는 사토야키라 목사님도 네팔 아웃리치에 동행했다. 일본도 지진피해를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네팔 사

람들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네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가 되라고 권면하셨다.

일정이 끝나갈 무렵 티베트에서 온 둔둑 목사님을 찾아뵈었다. 티베트는 중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동쪽끼리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한과 북한의 현실이 떠올랐다. 북한 사람들이 받고 있을 고통과 탈북자와 이산가족들의 상처가 생각났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두만강을 건너려는 북한사람들에게 총을 쏘듯이 히말라야를 넘는 티베트인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현실이 가슴 시리게 아팠다.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에 익숙해진 나에게 네팔과 티베트의 교회는 이색적이고 낯선 땅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방향이 같았다. 이번 아웃리치는 고난 앞에 서 있는 나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언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일본과 한국, 네팔과 티베트로 이어지는 아웃리치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잊지 못할 것이다.

장로칼럼

홀로 있음



서성현 장로
(대전 온누리교회)

“선생님, 안녕하
세요?”

보통 환자들의
말소리보다 한 옥
타브는 올랐음직
한 여자 목소리다.
금년 70세 된 여성
의 목소리치고는
가볍고 상큼하여

나이를 착각할 정도다. 평소 쾌활한 성격이 특
특 묻어 나온다. 요즘 몇 달째 위장병 때문에 고
생을 하시기에 그 이유를 물었다.

“본인의 식사습관 중에 잘못된 부분이라면 뭐
가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혹시 과식하거나 식사 속도가 빨라졌거나 특
별한 약물을 복용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그런 것 없습니다. 신경성 위장
병이었는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남편은 어느 병원 누구 원장이라면 이
지역 사람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한 분이다. 지
금은 칠십 중반을 훨씬 넘겨 병원생활을 접고
두 분에서 노후를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 간혹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찾아 가거나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 두 분은 언제나 잉꼬처럼 같이 외
출을 한다. 은퇴한 남편이 눈치 없이 명령만 내
리지 않고 집에서는 곰살맞게 요리도 거들고
이런저런 가벼운 가사일도 돕는다고 한다. 적어
도 그런 문제가 신경 쓰여 정서에 방해 받지 않
는다는 옹골찬 대답이었다.

언제나 구김살 없이 솔직하고 명랑한 성격의
그녀와 이런 저런 상담을 하다가 단서가 될 만
한 구석을 발견했다. 남편이 병원장으로 있을
때는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수영장에서 사
람 만나 수도도 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자질
구래한 취미생활을 나름대로 즐겼는데 남편이

은퇴를 결정한 날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일절
그만두었다고 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 혼자 있는 자상한 남편과 모
든 것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남마다 남편과 동료처럼, 친구처럼 일상사를
온전히 단짝으로 동행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했다. 홀로 있음의 미학에 금이 가는 소
리가 들렸다. 새벽 새소리처럼 목소리가 밝고,
환하고,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동짓
날 묵은지처럼 곰삭은 남편이라도 매사에 끈적
거리는 동행이 그녀에게 몇 달째 신경성 위염
을 선물하고 만 것이다. 우리는 몸이 불편하면
의사를 찾고, 약을 복용하면 질병이 나을 것이
라고 착각한다. 지식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덕분
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질병은 영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치료하면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재발과 투약의 악성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
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마
14:23)

공동번역에는 “조용히 기도하시려고”라고 기
록되어 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물고기와
떡으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
님께서도 사람들을 잠시 떠나 홀로 침묵하셨다.
홀로 있음의 당연한 진리를 새겨야 할 대목이
다. 같이 또는 따로의 적절한 공간 조정이 필요
하다. 본래 자유분방한 그녀는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치맛바람 휘휘 날리며 동서남북으로 종
횡무진 하던 행동반경에 제약을 받고, 의무와
동료의식과 배려가 도리어 마음에 짐이 되고
말았다. 그녀가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
은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뺨세 같은 눈이
왕방울 만해져서는 어느 때와는 달리 “고맙습
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출입문을 향했
다. 닳아서 나지막해진 구두 뒷굽이 활달한 그
녀의 목소리와 많이 닳아 있었다.

권사칼럼

비결은 ‘전도’



조혜선 권사
(강남C공동체)

나는 지난달
전도폭발훈련 1
단계를 마쳤다.
전도폭발훈련
을 받기 전까지
만 해도 내 삶이
변화되리라고
는 꿈에도 생
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전도폭발훈련이 전환점이 되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선물해주었다.

나는 천주교 신자였다. 그러다 1999년 좋
은 지인을 만나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남
편이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시기였
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알코올 중독은
심해졌다.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 직
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놓지 않았다. 주일을 목숨 걸고 지
켰고, 매일 큐티하고 새벽예배도 빠지지 않
았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런데도 내 삶
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무거운 인
생문제를 짊어진 채 좌절했다가도 다시 주
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기를 반복
했다. 지나간 시간 동안 고단한 신앙인으로
살아왔다. 누구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
처럼 힘든 인생을 산다고 여겼다.

올해 2월 간호사로 32년 일한 끝에 정년
퇴직을 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
민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
는 자리로 부르셨다. 삼성의료원에서 진행
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모임이 바로
그것이였다. 나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
하면서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
다.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일해 왔음을 회개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모임을 통해 나

를 다듬어 가셨다.

그러던 중 함께 기도모임에 참석했던 지
인의 소개로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하게 되
었다. 웬일인지 전도폭발훈련 첫 날부터 도
전이 되고, 설레고, 기대가 가득했다. 나는
전도폭발훈련에 정말 열심히 참여했다. 이
렇게까지 열성을 다해보기는 태어나서 처
음이었던 것 같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폭발 전문을
외울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부
를 해왔지만 서너 번 보고 완벽하게 외우기
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복음제시 전문 중에
“저의 모든 문제들을 안은 채 제 자신을 예
수님께 맡겼습니다”라는 문장이 마음깊이
와 닿았다. 참된 자유를 느꼈고, 평안해졌
다.

처음으로 전도하러 나갔을 때였다. 나를
훈련시킨 집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
하는 데 나는 자신이 없었다. 두려움이 몰
려왔다. 집사님이 내게 발마시지 받으러 오
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라고 권하셨다.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순간 내 안
에 기쁨이 샘솟았다. 5명을 더 전도했다. 예
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결신하고 ‘아멘’ 으
로 화답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나도 사명자임을 깨달았다.

요즘 주변사람들이 활기차고 예뻐진 이
유가 무엇이나고 묻는다. 그때마다 비결은
전도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서 전도했더니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전도
를 통해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요즘
도 양재전을 거닐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
다. 앞으로 지경을 더 넓혀 하나님께 더 크
게 쓰임 받는 전도부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벅
찬 기쁨을 꼭 맛보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이강현 전도사
(양지 온누리교회)

호남 지역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했다.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려는 취지로 다녀온 ‘영적성
장여행’ 이었다.

호남선교순례는 가족여행으로 진행되었다.
어른 22명, 아이 9명이 함께하였다. 중학생, 초
등학생, 미취학 아동도 있었다. 호남선교순례

여행을 간 날이 공휴일이라 차가 막힐까봐 걱
정이였다. 거리도 멀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는 않을까 염려했는데 기우였다. 아이들은 정
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쉴 새 없이 놀았다. 믿
음의 대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풍
성한 먹을거리도 큰 즐거움을 줬다.

버스에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면서 가고 있
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너나 할 것
없이 깜짝 놀랐다.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고를 모면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아이 엄마 한 분이 뒤로 넘어진 것이다.
다행히 머리가 땅에 부딪치지는 않았다. 엄마
만 넘어진 것이 아니었다. 품에 남자아이가 있
었다. 엄마의 품이 쿠션이 되어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 아이는 곧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디 부딪힌 줄 알았는데
아니였다. 아이는 멀쩡했다. 아이에게 안심하
라는 뜻으로 “하나도 안 다쳤네. 놀라서 그랬
지?”라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주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을 잠
재웠다. 주변 어른들은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
해서 관찰하는 말만 연발했다. 그런데도 아이
의 울음은 멈출 줄을 몰랐다. 아이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엄마도 놀랐잖아.”

그 아이는 자신이 아파서 운 것이 아니었다.
엄마가 걱정되어서 울었던 것이다. 그 순간 자
신만 놀란 게 아니라 엄마도 놀랐기에 그렇게
울고 또 울었던 것이다. 엄마가 다치지 않았
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눈물을 닦고 엄마의 품

에 안겨 평화로운 미소를 보였다.

전남 여수 애양원 성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
다. 전통적인 장로교회였다. 헌금시간에 헌금
봉투에 적힌 이름과 내용을 담임목사님이 읽
어주셨다.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유치부 아이가 적은 기도제목
이 인상 깊었다. 아이는 봉투에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게요.”

내 걱정만 앞세우는 세상에서 남의 아픔을
더 염려하여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고귀한가.
내 바람만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일방적인 기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려는
자세는 또 얼마나 고결한가. 오늘날 절실한 건
바로 어린아이처럼 순결무구하게 남을 더 생
각하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닐까.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열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운동(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안민경 간사(02-3215-3523)

온누리M센터 주말 조리사 급구

근무시간: 토요일 3시~10시, 주일 7시~5시

근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50-2(신천로 8) 온누리엠센터

급여: 센터내부 규정에 따름

문의: 장미숙 간사(010-4732-4371,

031-491-9602)

IBS 목요반 34기 모집

일시: 7월 21일~9월 1일(7주과정)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2:30

장소: 온누리교회(서빙고) 301호

문의: KIBI 사무실 02)792-7075-6

전윤옥 권사 010-2204-7378

온누리M센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직

원 모집

모집: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급 이상 0명

접수: 채용 시까지

접수: 이메일 접수 field1999@naver.com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자격증

사본 각 1부.

문의: 070-4439-1700-1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섬김의사 모집

자격: 온누리교인 중 정신과전문의

시간: 오전 11시 20분~오후 1시 30분

(서빙고, 양재 예배 중 선택 가능)

문의: 박성규 장로(010-3727-0010),

권용환 장로(010-7933-1958)

온누리 남성선교 합창단원 모집

연습: 매주 화요일 19:30~21:30, 한동을

접수: 7/3, 7/10 (주일) 오전 8시~오후 4시,

로비 안내데스크

문의: 김형준 총무(010-5437-1964)

서빙고 온누리상담센터 레지던트 모집

자격: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상담관련 석사

과정 이상, 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내용: 교육 1년, 교육비 1학기당 30만원

시간: 1일 상담, 1일 교육(수요일)

서류: 지원서, 최종학위증명서, 목회자

추천서, 임상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기간: 7월 17일~22일

문의: 02-793-2998, ksy1227ysl@hotmail.com

72기 사이닝글로리

일시: 7/17(월)~20일(수)

장소: 파주제자수양관

회비: 380,000원

문의: 오기현 간사(02-3215-3726)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오후 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감람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틀운동(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중증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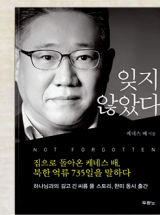
CGNTV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케네스 배 선교사 편

735일간의 북한 억류

노동교화소를 거쳐 2년 만에 풀려난 그가 말하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라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자
기적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방송일자 : 2016년 7월 7일, 14일 (목) | 오전 11시 30분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 ARS 060-700-1660